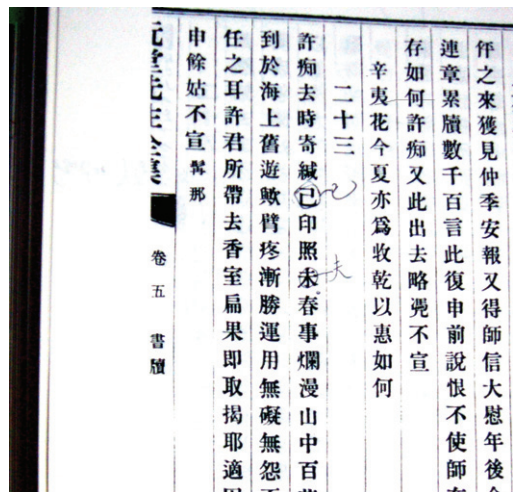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일로향실’ 편액 소치편에 보내

추사는 늘 제주도에서 초의가 보낸 차와 편지를 기다렸다. 소치 편에 보낸 그의 편지가 아직 도착되기도 전에 연이어 벗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낸다. 제주와 대문사는 바다를 사이에 둔 머나먼 땅, 물으로 떠나는 인편이 있으면 상황이 될 때마다 그리운 벗, 초의의 안부를 물었던 그였다. 이런 사연을 지닌 《완당전집》(여초의) 23신도 마찬가지이다. 진도로 돌아가는 소치 편에 편지를 보냈건만 다시 물으로 떠나는 인편이 있어 재차 안부를 물었는데, 이 편지에는 초의의 선실에 걸여 둔 ‘일로향실(一爐香室)’ 편액을 소치 편에 보냈다는 내용이 보인다. 차 향 가득한 벗의 선실(禪室)에 걸었을 ‘일로향실’이 어떤지를 은근히 물었다. ‘차향 가득한 그윽한 방’인 일로향실은 바로 초의가 머무는 선실의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드러낸 추사의 예술적 감성이 한창 드러낸 작품이다. 바로 초의가 궁구한 선과 차의 세계였던 다삼매(茶三昧)는 일로향실(一爐香室)과 짝을 이룬다. 다삼매의 경지가 무졌은 공간, 일로향실은 초의의 당호이자, 추사의 이상이 담긴 공간이기도 하다. 소치에게 보낸 ‘일로향실’ 편액 이야기는 이 편지의 중요한 핵심 정보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완당전집》(여초의)

초의선실 분위기 드러낸 작품
초의 다삼매·추사 예술적 감성 ‘ 짝’
‘명선’ ‘일로향실’ 추사의 정표 ‘명품’

스님을 잠깐 찾아뵙도록 하였습니디. 나머지는 이만. 연나 許痴去時 寄誠已印照夫 春事爛漫 山中百花盡 放禪喜自在 亦或念到於海上 舊遊蹤 宵夜漸勝運用無礙無怨否 賤狀口鼻風火尚苦 亦任之耳 許君所帶去香室扁 果即取揭耶 適因家伴之歸 使之暫爲歷申 餘姑不宣 軒那

소치가 물으로 떠날 때 보낸 추사의 성의는 편지 하나만은 아니었다. 차와 포장(泡醬)을 보내 삭막한 일상을 윤택하게 만들었던 벗의 배려를 늘 고마워했던 추사였다. 때론 일상의 여가를 담아

낸 추사의 목적은 초의에게 보내는 작은 정표였다. 그의 절세 작 ‘명선(茗禪)’이나 ‘일로향실(一爐香室)’ 또한 이렇게 탄생된 걸작들이다. 그의 뛰어난 예술적 심미안이 고스란히 드러난 ‘일로향실(一爐香室)’, 담박한 여백미와 통기성(通氣性), 정제된 필선은 감상하는 이의 눈을 시원하게 하는 명품 중에 명품이다. 바로 이 절품(絶品)이 소치를 통해 전해진 것. “허균이 가지고 간 향실(一爐香室) 편액은 과연 바로 받아서 걸었는가”라는 추사의 변은 초의의 답을 기다린 것인가. “봄이 한창 무르익어 산중에 꽃들도 한창 피었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편지를 보낸 시기와 1844년 봄, 물으로 떠났던 소치의 행적과도 일치한다. 더구나 그가 1844년 3월 10일, 집으로 보낸 편지에 “나는 설장(舌瘡)·허에 난 종기(疔)와 콧병으로 여전히 고생하면서 5-6개월을 끌고 있다”라 하였고, 이 편지에서 “저는 입과 코가 풍증과 화기로 오히려 고통스럽지만”이라 한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설장과 콧병을 앓았던 시기에 보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편지는 1844년 봄, 물으로 떠나는 소치 편에 편지와 편액을 보낸 후, 연이어 하인 편에 다시 보낸 것이니 ‘일로향실(一爐香室)’은 분명 1844년경에 쓴 작품이다. 한편 ‘해상에서 놀던 옛날 일도 생각이 나는지요’라고 한 말은 서로 잊지 말자던 벗, 초의를 그리워하는 추사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말을 타다 엉덩이와 팔을 다친 초의, 그를 염려하는 추사의 살가움은 이 편지에도 누누이 드러난다.



박동준(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문화포교는 결과일 뿐 모두가 수행에서 비롯

성과 스님 (조계종 원로위원)

“사람들이 나한테 문화포교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의도하고 하는 건 아니요. 수행 차원에서 원력을 세워 하나하나 이루어 내다보니 결론적으로 문화포교가 된 거지. 같은 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지만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승은 뭘 일을 해도 그게 다 수행이요. 그러니 우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가 중요한 거요.”

산수화전, 천연염색전, 금니사경전, 시조문학상 30년 운영, 16만도자대장경 조성 이처럼 성과 스님은 오랜 시간 문화포교를 진행했다. 하지만 스님이 이 모든 성과를 문화라 지칭하지 않는 이유는 스님에게 있어 이는 하나의 수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불교가 전통문화를 대표한다면 그와 관련된 문화를 불교가 찾아내고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하는 성과 스님.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그 속에서 불교문화를 꽃피우고자 하는 스님의 원력은 불교문화포교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나가고 있었다.

이런 성과 스님은 최근 또 하나의 불교문화의 발견과 재창조의 업적을 남겼다. 바로 옷칠 불화전이 그것이다. 5월 27일~6월 2일까지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열린 스님의 전시는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끊임없는 수행과 예술혼으로 불심의 세계를 표현한 스님의 작품은 불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공예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옷칠을 불화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입한 이유는 뭘까?

“옷은 천년을 간다고 할 만큼 영구보존이 가능한 재료예요. 나무 쇠 천 어디에도 접착이 잘 되지요. 방충 방항에도 강해 내구성이 좋아 천년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옷으로 다양한 공예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스님은 옷의 효용성과 전통성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옷에서 스님은 우리의 전통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교문화를 발견했다고 한다. “경상도 속담에 ‘뚝에 스님을 바도 옷 오르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스님들이 옷을 많이 취했었다는 말이에요. 사찰 근처 산에는 옷이 많으니 옷을 채취해서 발우를 깎아 옷을 짠했어요. 불상 개금 전에도 옷칠을 할만큼 옷은 절에서 유용한 재료였어요.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이 다 사찰이니 얼마나 많은 옷을 썼겠어요? 그러니 옷칠 문화는 곧 불교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항상 전통불교문화를 찾기 위해 고심하는 스님은 옷문화의 맥이 끊긴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다. “옷칠은 결국 민족 문화이면서 사찰 문화예요. 그런데 요즘은 스님들도 절집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하지 않으니 옷칠 문화가 끊겼고 또 불교문화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통도사 서운암에 옷칠 공방을 두고 옷칠로 불화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스님은 일찍이 옷칠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 전체를 옷칠을 하기도 했다. 스님은 “세계에서 옷칠로 목조 건물 전체를 칠한 경우는 장경각이 처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스님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만들어 낸 또 다른 결과물 중 하나가 올해로 30년을 맞는 성과시조문학상이다. 시조문학상 역시 우리 민족문화의 혼을 찾고 불교문화의 근간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조는 우리 민족문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우리 문화에 대해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시조를 선택했어요. 우리 뼈와 살에 흐르고 있는 진정한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싶었죠. 그런 점에서 시조문학상은 시조 시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조문학이 불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묻는 질문에 스님은 진정한 불교 포교는 불교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대중에게 이로운 것 그것이 바로 불교포교라고 강조했다. “굳이 불교라는 말

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불교계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그것이 불교 포교고 불교 문학이 되고 예술이 되는 겁니다. 시조문학상과 함께 29번째 초종교 대학생일반부를 대상으로 영남시조백일장도 개최하고 있는데 고등부 일반부 시제는 불교에서 뽑죠. 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화 포교가 되는 겁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서운암은 문화의 향기로 가득한 사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월 8일~9일까지 열린 제2회 하늘꽃 천연염색 축제 역시 성과 스님의 문화적 안목을 살릴 수 있는 규모 있는 행사다. 4만명 규모에 스님이 가진 300여종의 야생화로 꾸며진 서운암 경내는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만큼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이다. 이런 자연을 배경으로 개최된 하늘꽃 천연염색축제는 전국의 자연 염색 작가 500여 명의 작품 1500여점이 전시됐다. 자연과 어우러진 염색전들이 서운암을 장식했고 대중 2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것이다.

이 전시의 백미는 염색 퍼포먼스다. 흰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염색료 안으로 오색천을 넣어 염색을 완성해 스님이 이 천을 끌어 당기면서 이루어지는 퍼포먼

시조문학상 및 백일장 30여년

불교문화 발전 도모 ‘자부심’

도자대장경 불사·삼천토불 봉안

최근 옷칠불화로 새 장르 개척

천연염색 축제 대중 2천명 몰려

화엄 세계 표현한 퍼포먼스

서운암 4만명 경내는 자연학습장

불교문화 우수성 널리 알리길 발원

스는 삶의 고뇌와 지옥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로 화엄의 세계를 표현했다. 여기에서 웅덩이는 지옥을 상징하고 오색천은 오방색을 나타낸다. 스님은 이 역시 불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를 굳이 설명하거나 알리려 하지 않는다. “화엄 이런 불교용어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예술축제인 만큼 타종교인들도 오히려 대중들이 참여하는 축제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 일반인들이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문화포교는 절로 되는 거죠.”

스님이 천연염색에 이토록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경을 하면서 고령사경의 감지를 재현하고 싶다는 발원에서 시작되었다.

“1983년 금니사경전시회를 열었어요. 사경도 수행의 한 방편이잖아요. 그렇게 사경을 하다보니 전시회까지 열게 됐어요. 그때 사경을 하면서 왜 우리가 만든 고려 감지는 없는 것일까 의문을 품었어요. 당시 감지를 사려고 하면 일본에서 만든 종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만든 종이에 부처님 말씀을 사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감지를 만들자고 마음을 먹었죠.”

스님은 감지 제작 발원을 세워 물두웠고 다양한 시도 끝에 고려장지에 쪽물을 들여 고려 감지 재현에 성공한다. 그리고 감지에 사경을 시작하니 고려감지금니사경이 된 것이다. 염색에 대한 스님의 관심은 여기서 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염색을 익히니 다른 것들은

社團法人 세계 불교 법왕청

법왕 추대시까지 임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추진위 활동
추후 임시 중앙정부 선포식 일정 발표 예정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중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왕청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翁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왕청에서는 동참하시는 스님들께 경제적인 부담이나 경비를 단 한번도
요청한 적도 없으며 회비조차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항간에 금액을
요구했다느니 하는 모략과 시기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철없는 자들의 언행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제2회 하늘꽃 천연염색 축제가 지난 6월 8일~9일 서운암 경내에서 열렸다. 화엄의 세계를 표현한 퍼포먼스 장면.



성파 스님은 ... 월하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0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1년 통도사승가대학을 졸업한 이후 총무원 사회부장교 교무부장,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맡았으며, 제5대, 8대, 9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통도사 서운암에서 주석해온 스님은 오랫동안 문화포교를 펼쳐왔다. 성파시조문학상, 영남시조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으며 5년간 홀로 구운 3000불을 봉안했고, 10년에 걸쳐 16만 도자대장경 불사를 회향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무척이나 쉬워졌어요. 나무, 풀을 채취해서 염색을 시작했죠"

염색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스님은 한국의 문화는 컬러문화라고 강조한다. "우리 문화를 백의민족이라고 하는데 그건 송유역불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 2-300년 정도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청 지화 이런 것들이 다 화려한 컬러로 돼 있었어요. 그러나 불교문화가 융성했던 시대에는 이런 컬러 문화도 융성했던 거죠."

스님은 염색연구에 몰두하면서부터 일반 공개강좌를 통해 염색기법과 이론 등을 널리 알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전국에 자연염색 붐이 일어나게 된다. 각종 매스컴에서 스님의 염색기법이 소개되는 등 곳곳에서 천연염색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스님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일본 중국 등을 다니며 천연 염색을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천연염색의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각 대학 교수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성공리에 마친 옷칠 불화전 역시 이런 천연염색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완성된 결과물인 것이다.

스님의 수많은 업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불사가 또 하나 있다. 바로 홀로 구운 삼천불상과 팔만대장경의 앞뒤판을 분리 제작해 16만도자대장경을 10년에 걸쳐 완성한 것이다. 이중에서도 16만 도자대장경의 완성은 가히 그 공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팔만대장경 원본을 실크스크린으로 따서 세라믹으로 구워냈는데 양면으로 되어 있는 대장경의 앞뒤를 다 따오니 정확히 16만484장이 된다. 가로 50cm 세로 26cm, 두께가 2cm 가까운 판형을 고열로 구워내었다고 하니 그 정성과 공력은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



스님의 불화작업 장면.



제29회 성파시조문학상 기념촬영.

해 국내 세라믹 회사들을 두루 다니며 실험을 거듭했고 전기로 제작도 직접 했다고 한다. 그리고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이를 완성해 낸 것이다.

앞으로 스님은 꾸준히 옷칠로 한국불화를 재현하는 데 매진할 생각이다. 스님은 "전통 한국불화를 36종 165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작품들의 원형 보존에 계속해서 매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인터뷰 말미에 출가 전에도 이렇게 문화 분야에 소질이 있었는지 또 관심이 많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거 다 잊었다"며 미소를 짓는 성파 스님. 그 미소에는 오랜 시간 한 길을 걸어온 순수하고도 힘 있는 수행자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아직 할 일이 많지만 미리 말하고 싶지 않다는 스님은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너털웃음을 짓는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우유를 만들기 위해 물을 마시지 않는 소와 같이 문화포교를 목적으로 불사를 하지 않는다는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우유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소가 중요하지 우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문화포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행자예요. 수행자는 무슨 짓을 해도 수행자야. 수행자 아닌 사람이 수행자 흉내를 내서 그렇게 해도 그건 포교가 안돼요. 소가 서울에 있는 물을 마셔도 우유를 만들어 내고, 강원도에 있는 물을 마셔도 우유를 만들어 내듯이 그렇게 수행으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포교가 되는 거지."

그렇다. 수행자의 원력이 만들어낸 문화포교의 결과물들은 오롯이 한국불교 문화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스님이 꽃피운 불교문화의 꽃들이 후대에 오 오랫동안 기억되고 남아 우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세상에 알리길 바란다.

정혜수 기자 bwjns@hyunbul.com



꽃으로 작업한 선화 '무유공포(無有恐怖)'

전법일기

2010년부터 헤민 스님 법회 진행

우리 절집에서 '엄친아'라고 하면 딱 한 스님이 생각난다. 헤민 스님! 인품 좋고, 인상 좋고, 언변 좋고, 글 잘 쓰고, 학벌 좋고, 미국의 대학교수니까 직장(?)도 좋아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 지금까지 220만 권 넘게 책이 팔렸다고 하니, 수입도 여간 좋은 게 아니다. 게다가 인간성도 좋고 예절까지 바르다. 한국에 들어오면 전화라든지 인들에게 꼭 인사한다. 난 헤민 스님이 사랑스럽고 예뻐 죽겠다.(그렇다고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진 말라.)

헤민 스님을 소개한 사람은 내게 단체영화 관람을 권했던 울산 해남사 만초 스님이었다. 2010년 여름이었는데 해남사에서 헤민 스님 초청법회를 했더니 신도들이 아주 좋아하더라면서 우리절에서도 한 번 해보라고 권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딱이 생긴다고 했던가. 선배 말을 들어도 그렇다. 그래서 2010년 8월 15일과 이듬해 8월 14일에 법회를 했다. 첫 해엔 330명이, 2011년엔 230명이 참석하였고 반응도 좋았다.

작년 6월 11일, 헤민 스님이 여름방학이어서 귀국했다고 전화를 했다. 당시는 헤민 스님의 책 <법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교보문고에서 10주 연속 1등을 하면서 인기가 상한가를 치고 있을 때였다. 내가 "올해도 오셔야죠"라고 말했더니 그가 대답했다.

"스님, 제가요~ 올해는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은 너~무 바빠서 마치 연예인처럼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헤민 스님은 귀여운 킷소리로 말했다. 흥내를 낼 수 없어서 유감이다. "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작년까지는

사랑스러운 '엄친아', 헤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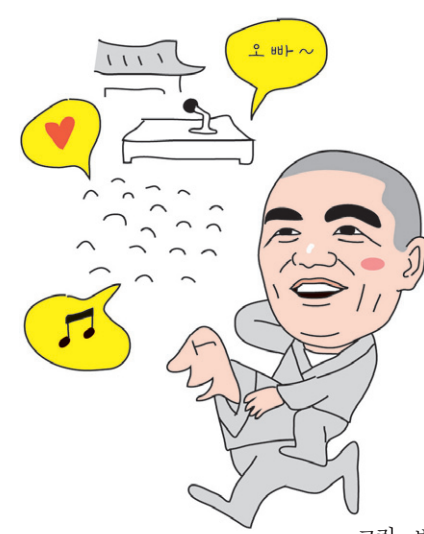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빠빠한 스케줄 뚫고 법회 응해

올해 3천명 이상 신도 몰려 '성황'

내가 원하는 시간에 스님을 초청했지만 올해는 스님 시간 날 때 오면 돼요." 헤민 스님이 수첩을 뒤지는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날을 잡아주었다.

나는 행사 한 달을 앞두고 대대적인 광고·홍보에 들어갔다. 대구불교방송 광고를 하루 열 번 이상 내보냈고, 불교방송 기획팀장이 불교카페 수 십 군데에 글을 올렸다. 지방언론사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헤민 스님 초청대법회 이야기를 하였더니 며칠 후 신문마다 큼직한 기사가 실렸다. 현수막 40장을 달았고, 두 군데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하루 종일 광고를 내보냈다. 1만장의 인쇄물을 모든 신문에 끼워 뿌렸다.

7월 24일, 그날은 섭씨 35도로 무척 더웠다. 얼마나 청중이 얼마나 모였는지 아마 부처님도 모를 것이다. 불교방송 관계자는 "돌아간 사람까지 더하면 4, 5천 명이 넘는다"고 큰소리했지만, 나는 "실마 그 정도야 되겠느냐"며 3천 명으로 깎아내렸다. 경내에는 더 들어올 자리가 없었고 주변도로는 백화점 오픈하는 날처럼 마비되었다. 교통경찰 여러 명이 애를 썼지만 밀려드는 차를 감당할 재간이 없었다. 헤민 스님 덕분에 우리절이 널리 알려졌다. 1년이 지난 요즘도 새로 등록하는 신도는 한결같이 말한다. "헤민 스님 법회 때 왔어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쉬고 있는 요즘, 헤민 스님은 관공서와 기업으로, 군부대로 숨 가쁘게 다니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한다. 그런데도 그를 편하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가끔 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불자를 제외하고 이 시대에 어느 누가 스님의 말에 귀 기울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헤민 스님은 귀한 사람이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다. "헤민 스님의 녹음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방송을 볼 때도 눈물을 흘렸어요. 스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처럼 나의 아픔을 잘 알고 위로해 줘요."

이처럼 대중의 근기에 맞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엄친아 스님이 올해에도 우리절에서 법회를 하기로 했다. 가을 무렵, 그날 땀을 뻘뻘 흘리며 짜장면을 만들어주었던 '사랑 실은 스님 짜장'의 운천 스님을 또 초청해야겠다.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 LED전구

팬스태킹전구

주름 등

왕정기 LED전구

칼라모카시전구

영가 등

공단 등

무량영정기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동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동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동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운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대) (소)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영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 794-4055 / 팩 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